새바람 행복 경북!	**경상북도 보도자료**	2021. 5. 2(일) TEL. 054-880-4322

제 목	담당부서	비 고
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광역철도 인프라 조기확정.. 사업 급물살** - 대구경북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 반영 - 이철우 지사, 관계부처와 광역철도사업으로 합의 이끌어 내	도로철도과	
② **경북 헴프 규제자유특구, 국내 최초 헴프 산업화 실증 착수** - 국내 최초로 헴프의 산업화를 위한 안전성, 상업성 검증 실증 착수 - 산업용 헴프를 활용하여 CBD* 소재 기반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 육성	바이오생명산업과	
③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광역도로 사업비 1,646억 원 반영** - 다사~다산간 480억원, 신매~압량간 360억원, 안심~임당간 806억원 반영 - 국토교통부,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안) 공청회 개최	도시재생과	
④ **경북도, 24시간 재난상황실 운영.. 신속 대응대세 완비** - 4.1일부터, 재난안전상황실과 당직실 통합 운영... 재난상황 초기대응	안전정책과	
⑤ **코로나19 피해 저소득 가구,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 지급** - 온라인 신청(5. 10일 ~ 5. 28일), 읍면동 현장 신청(5. 17일 ~ 6. 4일)	사회복지과	
⑥ **경북도,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공론의 場 마련** - 1차 지정 포항 배터리 특구 사업계획 변경으로 최종 사업화 단계 본격 돌입 - 코로나19 확산 감안, 주민의견 별도 접수 통해 변경계획에 반영	4차산업기반과	
⑦ **통상분야 국내최초, 한국국제통상마이스터고 개교식 열어** - 폐교 위기의 감포고, 고졸 취업 이끄는 마이스터고로 전환하여 주목 - 총 180명 규모의 기숙학교... 경북의 무역통상 앞장서는 전문가로 육성	청년정책관	
⑧ **역사 스토리텔러 신병주, 백두대간 인문캠프 특별강연** - 별의 도시 영천 백두대간 인문캠프 개최, 5.26일 SBS 방영 예정 - 역사교수 신병주 “포스트코로나시대 조선시대 전염병과 의학 이야기”	관광마케팅과	
⑨ **경북도, 경북기업연구소협의회와 연구중심 혁신R&D 가속화** - 경북도, 경북산학연혁신플랫폼 과제 기획 지원기업 10개사 모집 예정 - 올해부터 8개 시군 협의체, 산학연 협력R&D 과제 발굴에 본격 시동	과학기술정책과	
⑩ **경북도, 전국최초 지역 전문가 12명 규제닥터 위촉** - 전국 최초 규제닥터 운영, 도정현안 사항 및 미래 먹거리 창출 걸림돌 개선	법무혁신담당관실	
⑪ **경북도,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청년愛꿈을 응원한다!** - 경북도청에서 ‘2021년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 발대식’ 개최 - 15팀 최종선정, 팀 당 800만원의 과업수행비 지원	청년정책관	
⑫ **경북소방본부, 부처님 오신 날 대비 화재예방대책 추진** - 전통사찰 및 중요 목조문화재 216개소 소방특별조사 및 안전컨설팅 추진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5. 2(일)】	담당부서	건설도시국 도로철도과			
		작성자	과 장	이 성 균		
			사무관	김효준	주무관	복성원
		연락처	054-880-3977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광역철도 인프라 조기확정... 사업 급물살

- 대구경북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 반영-

- 이철우 지사, 특유의 협상 능력... 관계부처와 광역철도사업으로 합의 이끌어 내-

국토교통부가 지난 22일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신공항 연계철도인 대구경북선이 반영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기존 철도망의 문제점과 국토공간구조 변화 분석을 토대로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와 지역 거점간 고속이동서비스 제공 등 철도망 계획의 기본방향이 제시되었으며, 향후 10년간(2021~2030) 국가철도망 구축의 기본 방향과 노선확충계획이 담긴 국가 법정계획이다.

이번 4차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중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필수 교통인프라인 대구경북선이 확정됐다는 점이다.

그동안 통합신공항 연계철도망에 대한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지난달 25일 도가 주최한 통합신공항 성공적 건설 전략 구상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신공항 활성화의 최대 관건은 연결철도 등 접근교통망이며 이를 위해 국가교통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경북도는 당초 통합신공항 이전확정 후 공항연계 철도건설을 일반철도사업(국비100%)으로 반영하여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일반철도 반영불가 방침과 함께 경북도에 광역철도 추진을 제안하였다.

일반철도의 계획은 노선 전체의 수요·입지 여건 등을 국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된다. 이용수요가 충족되는 수도권이나, 각종 개발계획이 확정된 구역을 다수 통과하는 노선 등을 제외하고는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부터 지차체에서 원하는 계획의 반영은 힘든 현실이고, 자칫하면 경제성 논리에 밀려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험마저 상존한다.

반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광역철도는 건설비의 30%와 운영손실비의 100%를 경유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특징이다. 노선계획과 역사신설, 부대시설 계획 등 계획단계에서부터 실시단계 전과정에 걸쳐 지자체의 의견수렴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역시 지자체 의견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등 통합신공항 연계철도의 광역철도 추진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중심의 경제활성화 구상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공항주변지역 기업유치와 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계획을 통한 통합신공항 영향권 확대를 고려할 때 인적·물적 자원의 신속한 수송이 가능한 복선전철로의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복선전철로 결정되기까지 수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지방비를 부담해서라도 제대로 된 철도를 건설해야 된다는 이철우 도지사의 대승적 결단과 국토부 장차관을 잇달아 만나는 등 특유의 집념과 협상능력이 작용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통합신공항 도시구상 및 통합신공항과 주변도시간 접근성 향상 등 교통망 계획 수립을 위해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하여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다.

철도는 미래경제와 산업을 연결하는 대동맥으로 부각되는 사회간접자본으로 대구경북선 광역복선전철 확정은 통합신공항 활성화의 핏줄인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이 큰 성과로 평가

받는다.

아울러 통합신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고속도로 읍내분기점~의성나들목 확장과 북구미나들목~군위분기점간 고속도로 건설도 올 상반기 중 발표될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도 포함될 지 도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북도는 철도분야 대구경북선 확정이라는 큰 성과와 더불어 고속도로망까지 국가계획에 반영시켜 신공항 연계교통망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통합신공항 건설과 연계산업 육성에 집중해 2028년 성공적 개항에 차질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통합신공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장 큰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대구경북의 미래 100년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통합 신공항의 성공적 개항을 위한 첫 단추이자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한 필수요소인 대구경북선이 조기에 국가계획으로 확정된 것을 발판삼아 SOC는 물론 연관산업까지 완벽하게 갖추겠다. 앞으로 2028년 개항을 차질없이 준비해 510만 대구경북민을 재도약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현황도 별첨>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5. 2(일)】	담당부서	과학산업국 바이오생명산업과		
		작 성 자	과 장	김 주 한	
			팀 장	김춘희	담당자 박성훈
		연 락 처	054-880-2512		

경북 헴프 규제자유특구, 국내 최초 헴프 산업화 실증 착수

- 국내 최초로 헴프의 산업화를 위한 안전성, 상업성 검증 실증 착수 -
- 산업용 헴프를 활용하여 CBD** 소재 기반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 육성 -

* CBD(cannabidiol) :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성분

경상북도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국내 최초로 헴프(HEMP)의 산업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4. 30일 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전국 최대의 헴프(HEMP) 주산지인 경북은 2020년 7월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실증착수를 위한 사전준비와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우량품종선발을 위한 선행연구 등 재배방법연구에 집중해 왔다.

* 실증착수 준비사항(책임보험 가입, 이용자 고지, 안전에 관한 부대조건 이행계획 수립 등)

본 실증사업은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헴프(HEMP)의 산업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1세부)산업용 헴프 재배, (2세부)원료의약품 제조·수출, (3세부)산업용 헴프 관리 실증의 3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헴프 실증착수는 특구사업자가 제출한 실증착수 계획을 지난 4월 27일자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규제자유특구 전담기관)이 승인한 것으로 먼저 (1세부)헴프 재배와 (2세부)헴프 관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며, 금년 하반기에는 1세부의 재배된 헴프를 활용하여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실증을 위한 착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

그 간 헴프(HEMP)는 마약으로 분류되어 있어 엄격한 관리 아래 허가받은 자에 한하여 농업용, 학술연구용 등 일부 분야에서만 허용되어 산업용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뇌전증 증상완화와 항염증, 통증완화 작용에 효과가 있는 헴프(HEMP)에 함유된 CBD(cannabidiol)를 산업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본격적인 상용화에 들어간 북미·유럽 등 해외 선진국과 달리 국내에서는「마약류 관리법」* 상 헴프(HEMP)의 산업용 활용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 원료의약품 등의 개발과 제품화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 ① 섬유 또는 종자 채취 목적 외 산업용 목적 대마재배자 허가 불가, ② 종자, 뿌리 줄기 외 부분 전량 폐기, ③ 특정 경우 외 대마의 수출입·제조·매매 등 금지, ④ 산업화 목적 대마의 취급(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등) 금지

이에, 경북 산업용 헴프 특구는 이 같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특례*를 부여받아, 농업 관점의 재배 중심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산업화 재배방법 선행연구, 스마트팜 조성 등의 기반을 마련하고 헴프 재배부터 헴프 관리까지 당초 계획했던 일정에 맞춰 분야별 실증에 들어간다.

* ① CBD추출 목적 대마(헴프)재배 허용, ② 재배한 헴프의 잎 또는 미수정 암꽃을 폐기 대상에서 제외 허용, ③ CBD활용 원료의약품 및 의료목적 제품 제조·매매·수출 허용, ④ 재배부터 수출까지 전과정의 품질 및 안전관리를 위한 헴프 소지·운반·보관·관리 행위 허용

이번 헴프(HEMP) 산업화 실증을 정상 추진함으로써 헴프(HEMP)유래 CBD 산업화를 위한 안전성과 상업성 검증으로 연관산업 활성화를 앞당기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실증은 헴프(HEMP)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공존하는 사업으로 무엇보다 안전 관리대책이 헴프 특구사업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된다.

중기부와 경상북도는 마약류로 분류되는 헴프를 대상으로 실증하는 만큼 부대조건 이행·책임보험 가입·이용자 고지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현장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등을 통한 실증 전 과정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계획이며

헴프(HEMP) 산업화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IoT와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한 인수인계 및 폐

기 등 신고의 신속·정확성을 보장하고, 모든 참여기관이 동일한 이력정보에 대해 상호 간 교차검증을 할 계획이다.

또한, 헴프(HEMP) 산업화 전 과정의 안전검증 및 안전확보 관리 자문을 위해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대구식약청, 경북지방경찰청, 안동시, 관련전문가 등으로 안전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헴프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고, 실증착수에 따라 분야별 안전사항에 대해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실증은 '한국형 HEMP 산업화'에 걸림돌이 됐던 규제 완화를 위한첫 시도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며, 규제 완화로 이어진다면 국내 CBD를 활용한 원료 의약품 산업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부 김희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는 한국형 헴프 산업화 체계 구축으로 전통 산업을 재해석하여 농업 자원을 산업 자원화하는 사업"이라며, "헴프(HEMP)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한 만큼 블록체인기반의 전 주기 이력관리와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사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상북도 장상길 과학산업국장도 "헴프(HEMP) 산업 육성을 위한 유일한 정책수단인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안전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증하여 기존 경상북도 바이오·백신클러스터와 연계한 대마기반 전·후방산업 육성에 집중하여 한국형 헴프(HEMP) 산업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사진별첨>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실증착수 현장점검 계획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헴프 재배 및 안전관리의 실증착수를 위한 실증별 현장 프로세스 및 준비사항 확인

점검개요

○ 일　　시 : 2021. 4. 30(금) 13:00 ~ 15:50

○ 장　　소 :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안동포 문화공원

○ 참　　석 : 20여명(도, 중기부, 안동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 주요내용

- 실증사업 추진현황 보고 및 질의응답, 건의사항 논의
- 특구사업 현장방문 및 실증 프로그램 준비상황 점검 등

시간계획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3:00~13:40	40′	헴프 규제자유특구 추진현황 보고	
13:40~14:00	20′	헴프 실증지원센터 현판식	연구원 입주보육동
14:00~14:20	20′	헴프 실증지원센터 현장시찰	
14:20~14:50	30′	헴프 종합관제센터 현장시찰	연구원 벤처프라자
14:50~15:20	30′	이동(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 안동포 문화공원)	
15:20~15:50	30′	헴프 재배 현장시찰	안동포 문화공원
15:50~		폐회	

관련 이미지


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
안동포타운 스마트팜 조성도
농작업보 스마트팜
공동 건조구역
에이텍 스마트팜
원에이트 스마트팜
원에이트 추가부지
넥스트온 스마트팜
삼성원예 스마트팜
원방 스마트팜
중소벤처기업부
경상북도
안동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
재배 프로세스
초기 육묘
육묘동 성장
재배동 성장
수확
중소벤처기업부
경상북도
안동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5. 2(일)】	담당부서	건설도시국 도시재생과			
		작성자	과 장	장 상 열		
			사무관	장계준	주무관	엄재경
		연락처	054-880-3956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광역도로 사업비 1,646억 원 반영

- 다사~다산간 480억원, 신매~압량간 360억원, 안심~임당간 806억원 반영 -

- 국토교통부,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안) 공청회 개최 -

경상북도는 4. 29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주관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안) 공청회 개최 결과, 대구 대도시권역 내 3곳(다사~다산, 신매~압량, 안심~임당)의 광역도로가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총사업비 1,646억 원(국비50%,지방비50%)이 반영 됐다.

이번 공청회에서 공개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안)은 향후 20년간의 광역교통 수요예측 및 단계별 추진 전략 등을 담고 있으며, 시행계획(안)은 향후 5년간의 광역교통시설 확충 및 광역교통체계 추진방안을 담고 있다.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된 경북도 광역도로 건설사업으로는 대구 안심~임당간 광역도로(3.1km 806억원)는 교통이 혼잡한 대구 동구 안심과 경산 대정·임당 택지개발사업지구를 연결하는 광역도로 사업으로 국도4호선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사~다산간 광역도로(2.2km 480억원)는 대구 달성에서 고령 다산을 연결함으로서 다산면 지역주민들이 다사읍으로의 통행 접근성이 개선되어 교통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구 신매 ~ 경산 압량간 광역도로(1.8km 360억원)는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서 경산 대정·임당동 지역을 연결함으로서 국도4호선의 교통정체가 심각한 구간으로서 대도시권 출퇴근 교통량 분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는 이 최종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확정·고시한다.

한편 경북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 및 시행계획이 최종 고시되기 전까지 이번 공청회에서 반영되지 못한 도로(다사~선남, 동호~구덕)에 대해서도 추가 반영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된 광역도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물류비용감소, 민원해소, 교통망 확충 등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5. 2(일)】	담당부서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작 성 자	과 장	전 년 무		
			팀 장	정길열	주무관	심규태
		연 락 처	054-880-2119			

경북도, 24시간 재난상황실 운영... 신속 대응대세 완비

- 4.1일부터, 재난안전상황실과 당직실 통합 운영... 재난상황 초기대응 -

경상북도는 도내 발생하는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365일, 24시간 쉬지 않는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경북도청 청사 7층에 위치하고 있는 재난안전상황실은 연면적 232㎡의 사무실에 대형 상황판과 각종 재난상황관제·전파시스템, 영상회의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9명의 근무자가 3인 1조로 교대근무하고 있다.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상황대처와 수습을 위해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등 다양한 조직이 협업하여 움직여야 한다. 빠른 초기대응은 피해확산을 막고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재난안전상황실이 실시간으로 재난상황정보를 수집, 전파하는 등 총괄 상황관리 역할과 재난대응프로세서가 작동하기 전까지 초동지휘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가능케 한다.

그간, 구미 불산 가스 누출(2012년)과 같은 유해화학물질유출 사고, 경주·포항 지진발생(2016년, 2017년), 안동 대형 산불발생(2020년, 2021년) 등을 포함한 도내 크고 작은 재난사고의 초기상황관리가 모두 이곳에서 이루어졌다. 작년에는 코로나19 발생 영향으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접수한 재난안전사고는 1,704건이다.

또한, 긴급재난문자발송을 통해 도민들이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발송 횟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430건의 재난문자를 발송하였고, 올해에는 4월

30일 기준 89건을 발송하였으며, 매뉴얼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재난문자발송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4월 1일에는 직원복지와 재난상황업무 일원화를 위해 도청 당직실을 재난안전상황실로 통합, 업무를 집중화하였으며, 재난상황 초기대응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년무 경북도 안전정책과장은 “재난안전상황실은 불시에 찾아오는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재난상황으로부터 안전한 경북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별첨>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5. 2(일)】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작 성 자	과 장	전 재 업	
			팀 장	이정미	주무관 임재택
		연 락 처	054-880-3724		

코로나19 피해 저소득 가구,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 지급

- 온라인 신청(5. 10일 ~ 5. 28일), 읍면동 현장 신청(5. 17일 ~ 6. 4일) -

경상북도는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실직·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 피해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하는 코로나19 피해 저소득 가구이다.

이번 긴급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기준중위소득이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市 지역 3.5억, 郡 지역 3억 이하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경북지역 지원 대상은 4만5천여 가구로 총 지원금은 227억 원이다. 지급금액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정액으로 5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기존 복지제도(기초수급 생계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 및 2021년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긴급고용안정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은 제외된다.

예외적으로 농어임업인 경영지원(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 요건 충족 시 차액인 20만원만 지급된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신청은 5. 10일 ~ 28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 후 세대주가 신청

할 수 있다. 현장 방문 신청의 경우, 5. 17일 ~ 6월 4일까지 거주지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온라인 신청의 경우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홀짝제로 운영되며, 현장 방문 신청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되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는 현장 방문 신청이 불가하다.

소득은 본인 제출자료와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공적 자료(행복e음)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재산은 별도 제출 자료 없이 공적 자료(행복e음)를 통해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일반재산과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기타 재산, 자동차 등을 확인한다.

이에 따라 소득・재산조사 및 2021년 재난지원금 중복 수급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6월 말 신청한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경상북도는 정부의 한시생계 지원 사업 추진에 맞춰 한시생계지원반, 현장소통지원반 등 TF팀 구성을 마쳤으며, 23개 시군 또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최대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한시 생계지원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도청 행복콜센터(☎1522-0120) 등을 비롯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한시 생계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여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5. 2(일)】	담당부서	4차산업기반과			
		작성자	과 장	박 인 환		
			사무관	홍인기	주무관	권보창
		연 락 처	054-880-2476			

경북도,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공론의 場 마련

- 1차 지정 포항 배터리 특구 사업계획 변경으로 최종 사업화 단계 본격 돌입 -

- 코로나19 확산 감안, 4.20~5.15까지 주민의견 별도 접수 통해 변경계획에 반영 -

경상북도는 지난 30일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변경계획(안)' 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기존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사업계획 변경(안)' 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다만 현 코로나19 여건을 감안해 방역지침에 맞춰 인원 밀집을 최소화 하고자 핵심 추진기관인 도, 포항시, 경북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하였다. 이와 별개로 변경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은 사전에 경북도 홈페이지와 도보를 통해 공지하였으며, 4.20일 ~ 5.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실증특례 기간연장 1건, 임시허가 전환 1건, 실증특례 종료 2건이다. 이는 올 8월 배터리 특구실증이 종료됨에 따라 사업특성별로 임시허가 전환, 실증특례 연장을 추진하여 법령정비 완료 시까지 특구 내 실증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변경된 계획안은 6월 중 중소벤처기업부 관보로 고시되어 확정될 예정이다.

【참고 -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변경계획안】

○ (위　　치) 포항 일반산업단지 및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 (지정기간) 2019년 8월 ~ 2023년 7월

○ (주요내용) 사용 후 배터리 상태 진단 및 관리를 통해 사용 후 배터리의 재활용 및 재사용

○ **(변경사항) 1~3세부사업에 대한 실증특례 변경**

⇒ (당초) 실증특례 4개, 2년('19.8.9~'21.8.8)

(변경) ❶ 실증특례 연장 1개('21.8.9~'23.8.8) ❷ 임시허가 전환 1개 ('21.8.9~'23.8.8)

❸ 실증특례 종료 2개

특히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기준 마련 실증에 참여하는 기업

은 이번 임시허가 전환으로 그동안의 실증데이터를 기반으로 재사용 배터리를 적용한 개인용 모빌리티(PM) 시장 선점을 위한 시장 조기진출이 가능해졌다.

지난 2019년 7월 지정된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는 지정 후 전후방산업으로 연계된 기업의 끊임없는 투자로 총 8개사, 5,425억원* 투자유치, 특구사업자 122명 신규고용 창출이 이루어졌다.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간 전국 총 1조 4천억원 투자유치(규제자유특구 7,309억원)

또한 정부 그린 뉴딜사업과 연계한 후속사업으로 환경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사업(1단계 470억원)을 확보하였고, 특구 내 영남권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유치를 이끌어 냄으로써 올 6월 준공되는 경북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를 이차전지 산업의 전진기지화 시킬 계획이다. 여기에 예타 추진 중인 산업부의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개발(3,850억원) 사업까지 성공한다면 경북의 포항은 명실상부 이차전지 거점선도도시로서 기존 철강 산업과 함께 제2의 르네상스를 열어갈 전망이다.

일련의 유의미한 성과들로 배터리 특구는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 포럼 등에서 규제자유특구 대표사례로 발표하였고, 작년 첫 운영성과평가에서는 최고 평가(우수)를 획득하는 등 4차까지 지정된 전국 24개 규제자유특구 중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서 대내외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한편, 경북도는 공청회서 제안된 내용과 수렴된 주민의견을 변경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지역주민들이 공감하고 실증사업이 당초 목표한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분야 사업화와 제도개선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계속된 코로나19와 철강·제조 등 기존 주력산업이 주춤한 사이 경북의 지역경제는 정체기 인데, 규제혁신을 통한 신산업육성으로 지역혁신성장을 선도한 배터리 특구 성공사례를

복기해보면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지역발전 가능성을 확인했다” 면서 “향후 제2, 제3의 배터리 특구 발굴·지정을 통한 미래 신산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사진별첨〉

참고 배터리 특구 개요 및 사업내용

규제자유특구 개요

특구목적	국가 배터리 리사이클링 체계구축 및 규제혁신을 통한 사용후배터리 핵심소재 자원 확보 및 신산업 육성
특구명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사업기간	2019. 8. 9 ~ 2021. 8. 8 (총 24개월) * 1차년도 : 2019. 8. 9 ~ 2020. 3. 31, 2차년도 : 2020. 4. 1 ~ 2020. 12. 31, 3차년도 : 2021. 1. 1 ~ 2021. 8. 8
수행기관	[총괄] (재)경북테크노파크 [1세부] (재)경북테크노파크, [2세부] 에스아이셀, [3세부] ㈜에코프로GEM
주 체	중소벤처기업부, 경상북도, 포항시
사업비	총사업비 261.5억원 (국비 143.3억, 도비 31.0억, 시비 67.7억, 민자 19.5억) * 포항시 건축비 제외(약 107억원)
사업유형	[총괄] 규제자유특구 혁신플랫폼 구축 및 사업화 지원(플랫폼, 비R&D) [1세부] 전기차 사용후배터리 종합관리 사업(인프라, R&D 1세부) [2세부] 전기차 사용후배터리 재사용 사업(R&D 1세부) [3세부] 재사용 불가 배터리 재활용 사업(R&D 2세부)

특구사업 내용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5. 2(일)】	담당부서	청년정책관			
		작 성 자	정책관	박 시 균		
			사무관	이명자	주무관	김승현
		연 락 처	054-880-2753			

통상분야 국내최초, 한국국제통상마이스터고 개교식 열어

- 폐교 위기의 감포고, 고졸 취업 이끄는 마이스터고로 전환하여 주목 -

- 총 180명 규모의 기숙학교... 경북의 무역통상 앞장서는 전문가로 육성-

경상북도는 지난 30일 경주 한국국제통상마이스터고에서 강성조 행정부지사, 임종식 교육감, 안민석 국회의원, 주낙영 경주시장, 박차양 도의원, 감포고 졸업생, 학생 등 40여명이 참석해 ‘한국국제통상마이스터고 개교식’을 개최했다.

기존에 감포고 였던 한국국제통상마이스터고는 지자체와 교육청, 정치권의 협력을 통해 2017년 12월에 교육부로부터 제14차 마이스터고로 선정 됐으며, 차질없는 운영을 위해 2018년 ~ 2022년까지 5년간 총 322억 원이 투입된다.

* 5년간 322억원(교육부 50, 중기부 30, 교육청 220, 도 11, 경주시 11)

마이스터고 재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이 면제되고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며, 해외 직업전문학교 연수 등의 특화산업과 연계한 예비 마이스터 양성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졸업 후에는 우수기업 취업이 용이하며, 남학생들은 특기를 살린 군복무도 할 수 있어 학생과 학부모에게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 개교한 통상마이스터고는 대구·경북에 닥친 코로나19 상황으로 개교식을 무기한 연기하다가 1년이 지난 올해에야 진행하게 되었다. 현재는 2학년까지 총120명 정도가 학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국제통상마이스터고는 국내 최초의 국제무역 분야 마이스터고로 선정되

어,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특히 경북에는 도내 유일의 무역항인 포항항이 동해안 해양물류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완공되면 물류항공의 기능이 확충되기 때문에 무역통상 전문가들에 대한 수요가 매우 많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강성조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과거에도 그랬듯이 미래에도 우리 경북이 대한민국의 수출 중심지역이 될 것”이라며, “이 학교의 학생들이 국가와 지역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이끌어 갈 무역통상 전문가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도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이스터고는 전국에 54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 중 최근 선정된 포항해양과학고를 포함하여 경북에만 7개교가 지정되어 있어 가장 많은 마이스터고를 보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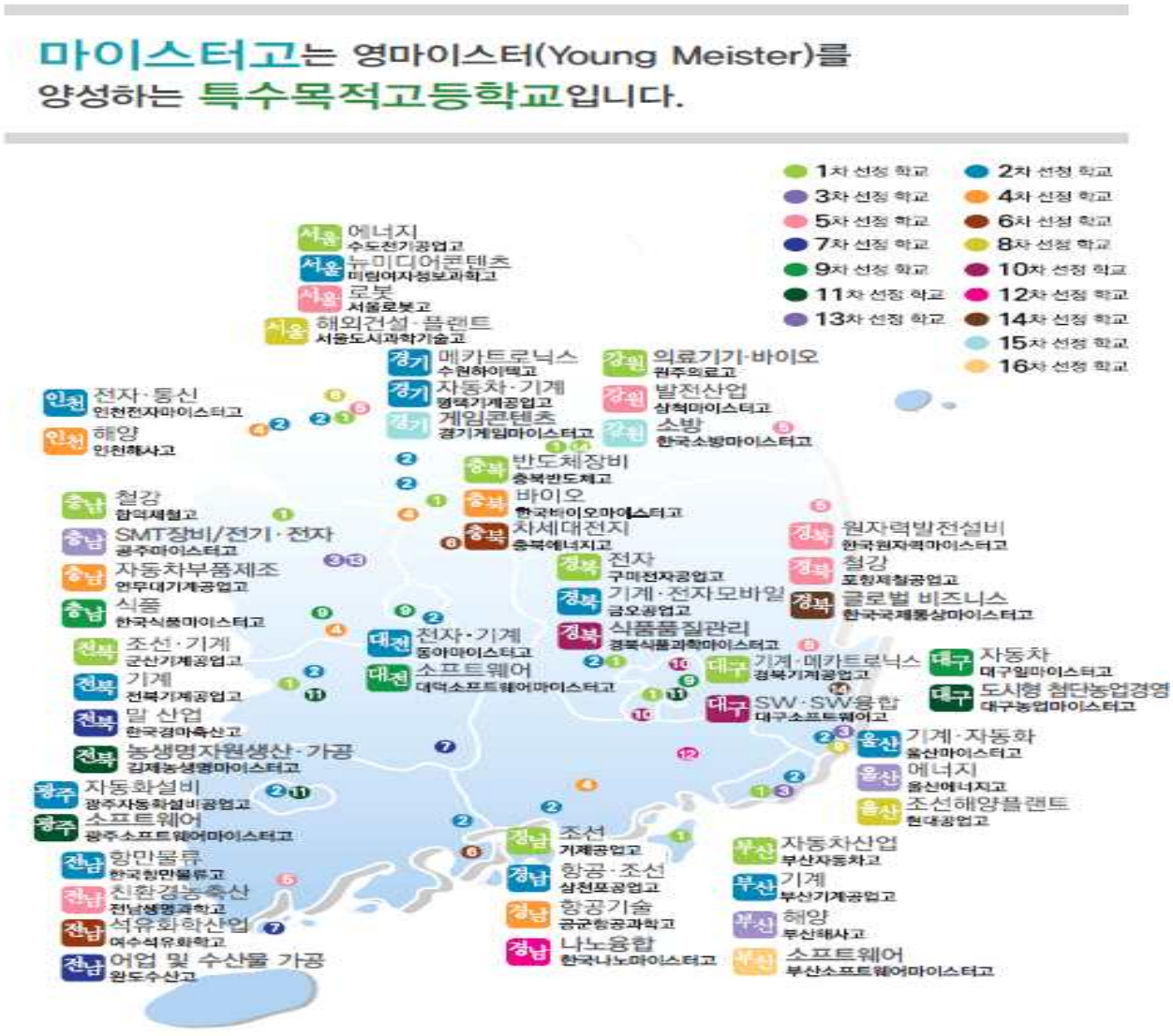
<사진별첨>

참고 **마이스터고 현황**

○ 도내 지정현황

학교명	산업분야	개교년도	시군	비고
계(7개교)				
구미전자공업고	전자	2010	구미	국립
금오공업고	기계·전자모바일	2010	구미	공립
포항제철공업고	철강	2013	포항	사립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	원자력발전설비	2013	울진	공립
경북식품과학마이스터고	식품품질관리	2018	영천	공립
한국국제통상마이스터고	**무역**	**2020**	**경주**	**공립**
포항해양과학고	스마트해양수산	2022	포항	공립

○ 전국 마이스터고 지정 현황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5. 2(일)】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관광마케팅과			
		작 성 자	과 장	송 호 준		
			사무관	김복순	주무관	김동영
		연 락 처	054-880-3197			

역사 스토리텔러 신병주, 백두대간 인문캠프 특별강연

- 별의 도시 영천 백두대간 인문캠프 개최, 5.26일 SBS 방영 예정 -

- 역사교수 신병주 “포스트코로나시대 조선시대 전염병과 의학 이야기” -

경상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지난 30일 인문학과 관광을 연계한 인문관광 분위기 확산을 위해 동의참누리원 영천한의마을에서 역사교수 신병주를 초빙, 명사와 함께하는 경북기행 ‘백두대간 인문캠프’를 개최했다.

백두대간 인문캠프는 인문학명사를 초빙하여 강연을 하고 명사와 함께 인문기행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유명인(셀럽) 바이럴 마케팅을 통한 경북의 관광명소를 홍보하기 위해 2019년부터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다.

인문캠프는 명사들의 고향이나 저서의 배경이 된 장소 또는 추억이 깃든 장소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강연하고 관광객들과 함께 관광명소를 탐방하는 1박2일 행사로 진행되며, 첫날 강연에는 지역 예술인이 참여하는 작은 음악회, 영천의 기·흥·정을 표방한 아리랑 태무시범단 공연, 문학토크, 영천사과 시식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준비했다.

특히, 첫 번째 개최하는 백두대간 인문캠프는 “포스트코로나시대 조선시대 전염병과 의학 이야기”라는 주제로 건국대 사학과 신병주 교수의 강연을 진행했다.

작가는 경북 안동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왕으로 산다는 것》, 《참모로 산다는 것》, 《56개 공간으로 읽는 조선사》등 조선왕조 관련 역사책을 60여권 집필한 조선시대 전문 사학자

이다.

작가는 별의 도시 영천을 방문하여 영천을 “영원히 기억될 천개의 이야기를 품은 고장”이라고 칭찬하며, 영천의 대표관광지 화랑설화마을, 동의참누리원 영천한의마을, 영천공설시장, 보현산 천문과학관을 방문하고 그 속에서 마주한 풍경과 사람들을 통해 깨달은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이번 강연 주제는 “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생각한다. 조선시대 전염병 대처와 교훈을 짚어보고 포스트코로나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위로와 지혜를 전달하는 시간을 갖고자 강연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초청 강연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나,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 유행에 따라 소규모 인원을 선착순 모집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기본지침을 준수하고 방역과 안전에 심혈을 기울여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작가와 함께 영천 관광명소 탐방을 1박2일로 진행하였으며, 관광객들은 영천와인터널, 보현산 천문과학관, 최무선과학관, 화랑설화마을, 임고서원을 탐방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부터 백두대간 인문캠프를 SBS 특별기획으로 편성하여 진행해오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지역의 스토리와 여행을 테마로 5월 26일 오전 10:30에 방송으로 송출될 예정이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신병주 작가와 함께하는 인문학과 관광을 연계한 스토리텔링 인문기행 첫 회에서 조선시대 우리 선조들의 전염병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뜻깊은 강연이었다. 안전하고 청정한 경북에서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이번 여행으로 위로받고 힐링하고 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포스터 별첨>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5. 2(일)】	담당부서	과학기술정책과			
		작성자	과 장	홍 석 표		
			담 당	유해복	주무관	조정화
		연 락 처	054-880-2433			

경북도, 경북기업연구소협의회와 연구중심 혁신R&D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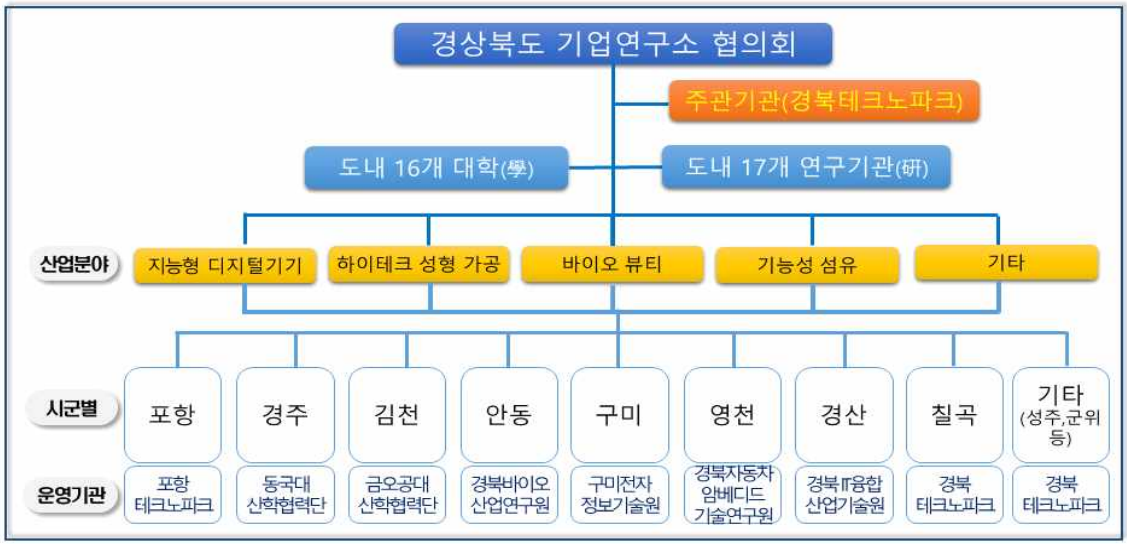
- 경북도, 경북산학연혁신플랫폼 과제 기획 지원기업 10개사 모집 예정 -

- 올해부터 8개 시군 협의체, 산학연 협력R&D 과제 발굴에 본격 시동 -

경북도는 '경북 산학연 협력 혁신 플랫폼 지원사업'의 과제 기획지원 기업 10개사를 5. 3일 ~ 14일까지 2주간 모집한다.

경북 산학연 협력 혁신 플랫폼 지원사업은 지역의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지역의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번 과제에 선정된 기업은 대학·연구기관이 기업의 혁신 R&D 과제 발굴을 위해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경북기업연구소협의회에 가입했거나 가입예정인 기업이며,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경북테크노파크의 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북기업연구소협의회는 세계의 글로벌 경쟁 및 개방형 혁신의 가속화에 발맞춰 대기업-중견·중소기업-대학-연구기관 간 기술융합화를 촉진하기 위해 2019년에 9월 30일에 출범하여 현재 550개사가 가입되어 있다. 또한, 작년에는 산학연 협력 혁신생태계 확산을 위한 8개 시군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올해부터 시군협의체에서는 학연협력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서부터 시제품 제작지원까지 지역맞춤형 산학연 협력 지원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경북기업연구소협의회 추진체계>

경북기업연구소협의회에서는 산학연의 네크워킹을 강화하여 기업의 혁신 기술개발을 통해 신산업을 창출하고 그것을 국책과제의 공모로 연결하여 기업 및 지역이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 덕분에 작년에는 지역기업에서 10개사 124억 원의 국가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올해에도 10개사가 국가 공모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아울러, 경북도에서는 데이터 기반 과학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산학 전문가 DB 등 산학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구축 중에 있으며, 경북기업 소통넷, 시군 분과협의회 및 산학연 합동 기술교류회 등 비대면·대면 네크워킹을 통하여 산학연 혁신 주체들 간 오픈이노베이션이 가능하도록 혁신 개방형 생태계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장상길 경상북도 과학산업국장은 “R&D를 매개로 기업과 지역의 동반성장의 해법을 찾기 위해 산학연관 협업은 필수적이다” 며, “강화된 산학연관 시스템으로 지역기업이 기술로 나아가 혁신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자생적인 개방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 고 전했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5. 2(일)】	담당부서	법무혁신담당관실			
		작 성 자	담당관	박찬경		
			사무관	오남현	주무관	박민수
		연 락 처	054-880-2252			

경북도, 전국최초 지역 전문가 12명 규제닥터 위촉

- 전국 최초 규제닥터 운영, 도정현안 사항 및 미래 먹거리 창출 걸림돌 개선 -

경상북도는 30일 도청 안민관 다목적 홀에서 전직 삼성전자 상무, LG생산기술원 연구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업대표 등 생산·산업 현장의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겸비한 전문가 12명을 ‘규제 닥터’로 위촉했다.

위촉식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전문가의 위치에서 산업·생산현장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도정 정책 추진의 애로요인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대형 신산업 발굴·유치 등 경북발전과 중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가 무엇인지 진단 및 해법을 마련하고 그 성과를 9월 내지 10월 경 보고해 달라”고 하면서 “함께 가면 역사가 되듯이, 협력해서 미래 경북발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경북도 지난 3월부터 전국 최초로 가정의학의 형태를 규제개선 전 과정에 도입해 규제가 통합신공항 건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대형 프로젝트 개발 등 직면한 대형 프로젝트 추진에 손톱 밑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지 않는지 점검해 보기 위해 규제닥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위촉된 규제닥터들은 이후 규제의 발굴부터 해소까지 경북도 규제 개선 전 과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이를 위해 먼저 현장·기업 방문을 통한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숨어있는 규제 찾아내기에 전념할 예정이다.

다음으로는 발굴 규제의 효과적 해결을 위해 법령·제도 등 개선이 필

요한 중앙부처 건의 과제분류, 자치법규 및 행정행태 등 실·과 자체 해결 규제선정, 규제개혁위원회 및 적극행정위원회 안건 상정 결정 등 규제의 성질에 따른 맞춤형 진단과 해결책을 모색한다.

또한 미해결 과제 해결을 위한 끈질긴 대응과 새로운 해법 강구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다. 대응논리 보강, 대안제시 등 새로운 해결방안 마련으로 중앙부처 등에 재건의(再建議)를 추진해 나가고 자체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담당부서와의 연석회의를 개최로 해법을 마련해 나간다.

마지막으로 규제개선 전 과정에 대한 사후관리이다. 수용된 과제에 대한 실제 개선여부 등 이력관리, 규제 수요자의 만족도 조사·평가, 개별 규제 해결에 따른 지역발전 파급효과 평가, 규제개선 담당자 규제이행 의지 평가 등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 나간다.

한편 김장호 기획조정실장은 “규제닥터는 단순 자문기능을 넘어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핵심 규제가 무엇인지 직접 진단해 보고 바로 현장에서 처방하는 의사와 같다”며, “앞으로 실질적 성과를 내는 정책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사진별첨〉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5. 2(일)】	담당부서	청년정책관		
		작 성 자	정책관	박 시 균	
			팀 장	김 석 기	담당	강 태 겸
		연 락 처	054-880-2774		

경북도,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청년愛꿈을 응원한다!

- 경북도청에서 ‘2021년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 발대식’ 개최 -
- 15팀 최종선정, 팀 당 800만원의 과업수행비 지원 -

경북도는 30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2021년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발대식에는 최종 선발된 청년공동체 15개 팀과 하대성 경제부지사 등이 참석해 만남을 가지고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사업 수행 및 보조금 사용 교육 등을 실시했다.

경상북도의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은 도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난 2020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했고, 올해부터는 행정안전부와 경북도 주관으로 과업수행비 지원금액을 높여 확대 시행한다.

지난 2월 공모를 거쳐 접수된 총 33개 팀 중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명확성, 목표달성 가능성, 사업추진 의지 등을 평가해 15개 팀을 선발했으며, 오는 11월까지 약 7개월 동안 활동한다.

선발된 공동체는 ▷지역사회와 교류·협력을 위한 행사 개최 ▷문화·복지 등 지역청년 활동기반 마련 ▷지역주민 및 도내 청년 네트워크 구축 ▷지역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활동을 추진한다.

팀별 사업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봉화의 ‘봉화에취하다’ 팀은 조주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청년들이 다양한 형태의 전통주 개발과 보

급으로 지역 경제와 농촌관광 활성화를 이끈다.

경산의 ‘스케치’팀은 코로나19로 지친 청년들을 위한 ‘슬럼프 영화제’ 기획 및 상영회를 통해 청년문화 조성에 힘쓴다.

경북도는 이들에게 800만원의 활동지원비와 컨설팅, 온라인 홍보, 멘토링 연계 등 활동 지원에 나서는 동시에, 오는 10월 청년공동체별 활동결과에 따른 성과를 평가해 우수 청년공동체를 선정·포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사업으로 총 117명의 청년들이 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 경북도가 시도하는 다양한 청년 정책의 파급효과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대성 경제부지사는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을 통해 새롭고 건강한 청년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정착 의지를 높여,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경북을 청년들의 미래로 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해 시범적으로 시행한 사업에서 23개 팀 선정에 86개 팀이 몰려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관광, 문화, 예술,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공동체가 참신한 아이디어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특히, 청년 예술가로 이루어진 포항의 ‘레마앙상블’ 팀은 코로나19로 지친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작은 음악회를 개최해 감동을 자아냈다.

<사진별첨>

2021년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 발대식 계획

□ 개　　요

○ 일　　시 : 2021. 4. 30.(금) 15:00 ~ 17:00

○ 장　　소 : 도청 동락관 세미나실

○ 참석인원 : 30여명(경제부지사, 공동체 선정 15팀, 관계자 등)

○ 주요내용

- 청년공동체 간 네트워킹 및 사업 협력방안 모색
- 사업 매뉴얼 안내, 보조금 사용 관련 회계교육 등

<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 개요 >

- 참여대상 :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구성된 5인 이상의 공동체
- 선발규모 : 청년공동체 15팀 내외
- 지원내용 : 청년공동체 팀당 8백만원 이내 활동비 지원
- 사업내용 : 지역자원과 연계한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및 네트워크 등 교류·협력

□ 시간계획

시　간	분	주 요 내 용	비　고
15:00 ~ 15:05	5′	◆ **참석자 등록(접수)**	
15:05 ~ 15:10	5′	◆ **인사말씀**	경제부지사
15:10 ~ 15:30	20′	◆ **사업 매뉴얼 안내**	경제진흥원
15:30 ~ 16:00	30′	◆ **보조금 사용 교육**	
16:00 ~ 16:20	20′	◆ **질의 응답**	
16:20 ~ 17:00	40′	◆ **공동체 네트워킹**	
17:00		◆ **폐　　회**	

□ 향후계획

○ 사업 추진현황 점검 등(6월~)

○ 성과공유회, 네트워크 행사 등 개최(8월~)

○ 정산 및 추진결과 보고, 환류 등(12월 중)

참 고 2021년 청년 공동체 활성화사업 선정팀 현황

연번	팀 명	활동지역	사업내용
1	포크	포항	마을 문화 활성화 사업 및 로컬푸드 프로젝트 시행
2	레마앙상블	포항	지역 음악회 개최 및 청년 예술가 발굴
3	성림조형원 협동조합	경주	지역축제에 사용가능한 전통 조형물 제작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
4	알숨달숨 협동조합	경주	경력단절여성 대상 재능기부 및 지역어르산과 함께하는 마을 음악회 개최
5	청년경제연구소	구미	구미 로컬음악가 양성, 지역 대학동아리 연계 축제 개최
6	청년온더경북	구미	청년문화강연 및 영상콘텐츠 전시회 기획
7	구미로컬푸드협동조합	구미	청년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나눔사업 진행 '우리동네 공동밥상' 운영
8	청년네트워크 두레반	영천	청년문화 콘텐츠 발굴 및 청년문화리더 양성
9	상주청년농촌살이	상주	청년 도서관 및 문화대여공간 운영 지역 기반 플리마켓 기획 청년, 지역주민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10	스케치	경산	'슬럼프 영화제' 기획 및 상영회 개최 크리에이터 발굴 및 청년 콘텐츠 활성화
11	온리바네스	경산	재능기부를 통한 공예활동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12	청세권협동조합	의성	지역청년들과 함께하는 청년 네트워크 행사 개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플리마켓 행사 개최
13	사이다	의성	지역청년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일일강좌 개설 지역 명소 발굴과 콘텐츠 제작 및 홍보
14	경북청년공동체협의회	봉화	지역청년 작가들의 작품 전시회 개최 마을단위 소규모 문화예술 축제 및 행사운영
15	봉화에 취하다	봉화	다양한 형태의 전통주 개발 및 보급 봉화 전통주 축제 및 행사 운영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5. 2(일)】	담당부서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작 성 자	과 장	조 유 현		
			소방령	김인식	소방경	김도연
		연 락 처	054-880-6230			

경북소방본부, 부처님 오신 날 대비 화재예방대책 추진

- 전통사찰 및 중요 목조문화재 216개소 소방특별조사 및 안전컨설팅 추진 -

경북소방본부는 오는 5월 19일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앞두고 전통사찰 안전관리에 나섰다.

전통사찰은 부처님 오신 날을 전후로 하여 주변에 연등을 밝히며 봉축행사를 한다. 행사 전후 촛불·전기 등 화기사용이 많고, 전통사찰 대다수가 목조 건축물로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 또한 산림 주변에 위치한 전통사찰이 많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산림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부처님 오신 날이 속한 달의 화재가 349건으로 전월(318건)보다 9.74%가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2016년 ~ 2020년)간 전통사찰에서 발생한 화재통계를 살펴보면, 총 38건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1명이 인명피해(부상)를 입었으며 재산피해는 약 3억 8천만 원 정도가 발생하였다. 화재발생 원인은 화기취급 등 부주의가 24건(63.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원인미상이 7건(18.4%)으로 나타났다.

경북소방본부는 부처님 오신 날을 대비하고자 화재 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곧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하여 전통사찰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중점 추진으로는 ▷소방시설 정상작동,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태

확인 등 소방특별조사 ▷화재취약요인 사전제거 및 화재대응요령 교육 등 현장방문 컨설팅 ▷신속한 초등대응을 위한 전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특히, 도내 전통사찰 중 국보·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사찰(21개소)은 소방서장이 직접 방문하여 관계인에게 화재예방 안전교육 및 초동대응 요령 등 안전컨설팅을 실시한다.

김종근 소방본부장은 “사찰에서 연등 설치 시 촛불 사용을 지양하고 전선을 이용한 연등은 전문가가 직접 설치하고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코로나19로 도민들이 불안하고 힘든 상황에 부처님 오신 날안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화재예방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사진별첨>